

<http://dx.doi.org/10.20880/kler.2020.55.2.141>

## 정보화 시대의 국어사전의 역할과 의의

이기연 국립국어원 학예연구사

- \* 이 논문은 제70회 국어교육학회 학술발표대회(2019. 12. 7.)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 한 것이다.
- \*\* 이 논문은 전적으로 연구자 개인의 학문적 견해이며, 연구자가 속한 기관의 공식적인 입장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 I. 머리말
- II. 연구사 검토
- III. 국어사전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및 사용 양상
- IV. 변화하는 국어사전의 방향
- V. 맺음말

## I. 머리말

“글을 읽다가 혹은 대화를 나누다 모르는 용어, 낯선 단어를 만나면 당신은 어떻게 하는가?” 본고는 이러한 질문에서 시작한다. 이 질문은 다음과 같이 세분화될 수 있다. 핸드폰을 꺼내거나 컴퓨터의 웹에서 포털을 열어 검색 창에 단어를 쳐서 정보를 확인하는가? 아니면 사전 어플 혹은 사전 사이트를 이용하는가? 어떤 단어는 사전을 찾고, 어떤 단어는 포털에서 통합 검색을 하는가? 단어의 뜻풀이뿐 아니라 사용 양상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사전의 용례를 찾는가 아니면 포털에서 해당 단어를 쳐서 나오는 다양한 텍스트들을 확인하는가?

두툼한 국어사전의 얇은 종이를 조심스레 넘겨가며 단어를 찾던 시절과 비교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모르는 말’에 대한 정보를 얻는 방식이 이전과 사뭇 달라진 것은 사실이다. 온라인 서점 등에서 ‘사전’을 검색해 보면 여전히 매우 많은 종수의 책이 ‘사전’이라는 이름으로 출판되고는 있으나 전통적인 형태의 ‘언어 사전’이라기보다는 ‘사전’류의 도서이거나, ‘사전’에 대한 도서로 이루어져 있고 전통적인 언어 사전(국어사전)에 해당하는 사전은 손

에 꼽을 정도로 적은 편이다. 최근의 종이로 된 국어사전은 초등학생을 위시로 교육 등의 특수 목적이나 수준으로 나눈 교재형 사전이나 소사전의 형태를 띠고 있거나,<sup>1)</sup> 일반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중·소사전의 형태 등으로 제한적인 양상을 띤다.<sup>2)</sup>

현재 국어사전은 주로 인터넷 사전의 형태로 유통되고 있으며, 자체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 우리말샘,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의 연세 현대 한국어사전과 국내 대형 포털에서 서비스하는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과 우리말샘 역시 대형 포털에서도 서비스되고 있어 현재는 포털과 사전 누리집이 사전을 이용하는 주 경로라 할 수 있다. 다양한 정보의 통합 검색이 가능한 포털에서 사전 정보 역시 함께 제공되는 이러한 서비스 방식은 사전과 사전이 아닌 것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는데 이는 사전에서 찾는 국어 ‘단어’의 성격이 모호하다는 점과도 궤를 같이한다. 가령 ‘아버지’, ‘사과’, ‘딱 정벌레’, ‘민주주의’, ‘견다’, ‘꿰넘하다’, ‘명현 반옹’ 등의 단어 몇 개를 살펴보자. 이는 한국어로 되어 있는 국어 ‘단어’이면서 지칭할 대상이 분명한 행위나 사물이기도 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이론이기도 하며, 일상적 사물이면서 학문적 지식을 통해 특징이 밝혀지는 대상이기도 하다. 때문에 어디까지가 이 단어의 언어적 정보고 어디까지가 백과적 정보인지, 어디까지가 단어의 ‘의미’이고 얼마만큼이 그에 대한 ‘지식’인지 그 경계가 모호하다. 이에 국어사전에서 다루고 있는 표제어의 다양한 종류만큼이나, 국어사전이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층위와 내용이 포털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전문 지식과 어떤 차이를 가지고 어떤 접점이 있어야 하는지를 살피는 것은 제공되는 정보도, 정보를 제공하는 매체와 경로도 다양하진 현재, ‘사용자가 과

1) 연세 초등 국어사전(동아출판), 보리 국어사전(토박이사전편찬실), 속뜻풀이 초등 국어사전(초등 국어사전(LBH교육출판사), 나의 첫 국어사전(초록아이)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엣센스 국어사전(민중서림), 동아 새국어사전(동아출판사) 등을 찾을 수 있었다.

연 국어사전을 필요로 하는가'에서부터 '국어사전이 무엇을 어떤 형태로 어떻게 제공해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일과 다름 아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그 어떤 텍스트보다 실용적인 목적이 우선되는 텍스트인 사전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사전에 무엇을 바라는가, 사전의 정보와 포털의 지식을 구분하는가(매체의 차이를 인식하는가), 이용자들은 언제 어떻게 왜 국어사전을 이용하는가를 살펴야 할 필요가 생긴다.<sup>3)</sup>

## II. 연구사 검토

사전에 대한 연구는 90년대 이후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꾸준히 발전해 왔다. 그러나 논의들은 대부분 사전의 거시 구조와 미시 구조에서 형태 정보, 어원 정보, 문형 정보, 용례 정보, 뜻풀이 정보 등 사전 표제어의 개별 정보를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를 주로 다루고 있어 사전 이용자의 인식이나 사용 양상에 대한 연구나, 사전의 매체별 특성(종이 사전과 웹 사전이라는)에 따른 사전 편찬 방향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는 않은 편이다.

사전 사용자의 이용 양상이나 사전에 대한 사용자 인식을 다룬 연구로는 주세형(2000), 이상섭(2000), 배주채(2009), 배연경(2013), 정철(2016), 이경우(2018), 김종환(2018), 국립국어원(2019) 등의 논의를 참조할 만하다.<sup>4)</sup>

- 
- 3) 하트만(2008: 13)은 그의 책에서 "사전 작업의 의의는 그 사전 이용에 의해 평가받아야 한다"라는 사뮈엘 존슨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사전 편찬이 사전 편찬자의 입장보다 사용자의 효용에 주목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 4) 모국어화자가 사용하는 국어사전의 사용양상보다 '학습'이라는 목적이 분명한 외국어사전의 사용 양상에 대한 연구는 국어사전의 사용 양상에 대한 연구보다는 많이 발견된다. 이는 사전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특정한 '목적'에 의해 활용되는 텍스트라는 성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국어 사용자가 모국어로서 사전을 이용할 때 어떤 목적에서, 왜, 무엇을 찾고자 하는지 확인하는 일은 꽤 의미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주세형(2000) 사전을 만들기 전에 사전의 기능과 수요에 대한 기초 연구가 없이 국어사전이 편찬되어 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활용할 수 있는 사전’이 되려면, 기초 연구 중에서도 사용자 집단의 분석이 가장 중요하고 실제 사전을 편찬할 때 사용자 집단의 요구 분석의 결과를 감안하여 이에 따라 편찬관을 명확히 한 후에 작업을 시작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배연경(2013)은 영어 학습자 사전을 중심으로 기존의 사전 사용 연구들을 분석해 이를 통해 사전이 언어(외국어) 학습에서의 역할과 위치를 검토하고 학습자들이 선호하는 사전 및 학습자들에게 필요한 사전은 무엇인지, 학습자들은 어떠한 사전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는지를 개괄하면서 이러한 연구가 사전 편찬의 관점에서도 중요한 함의를 지닐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연구자는 “사용자의 계발과 사전의 개발은 함께 나아간다”는 Whitcut(1986: 121)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사전 사용자의 사전 사용 기술(技術) 부족이 사전의 편찬 방향을 수립하고 사전의 기술(記述) 방식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시사점을 준다고 보아 사전 사용자의 사전에 대한 인식이나 연구가 필요함을 제안하고 있다.

실제 사용자의 사용 양상에 대한 연구는 사용자 설문 조사 연구로 이상섭(2000), 이경우(2018), 국립국어원(2019)이 있고 포털을 중심으로 서비스되는 웹 사전 사용 양상을 분석한 정철(2016), 김종환(2018) 등을 참조할 수 있다. 해당 연구들에서 사용자 설문은 주로 이용하는 국어사전의 형태와 이유, 가장 많이 찾는 국어사전과 이유, 국어사전을 찾는 용도, 국어사전에 바라는 내용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중 이경우(2018)의 조사는 신문사 기자 및 아나운서를 대상으로 한 조사로 사전을 직업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집단을 대상으로 한 조사이고, 이상섭(2000), 국립국어원(2019) 등은 국민 일반을 대상으로 한 조사이다. 사전에서 이용하는 정보나 용도 등의 측면에서 조사 결과는 대체로 유사했으나 일반 국민의 경우 사전 이용률이 낮고, 특정한 사전을 쓰기보다는 포털 검색을 이용한다(사전 사용과 포털 검색의 차이를 구별하지 않는 듯한 경향)는 응답이 주를 이루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었다.

한편 웹 사전, 사전 환경 변화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종이 사전에서 온라인 사전 서비스-인터넷 사전으로 진행되는 중간 정도라 할 수 있는 전자 사전을 포함하면 강현화(2000), 정철(2006), 정철(2008), 홍재성(2009), 강현화(2009), 이홍식(2010) 등을 우선 확인할 수 있다. 강현화(2000)는 전자사전의 특징에 따른 사전 편찬 유의점에 대해 기술하였고 정영국(2003)은 영영 전자 사전의 표제어 설정 방식 및 검색 방식을 비교한 논문이었다. 이홍식(2010) 역시 인터넷 사전과 전자 사전의 검색 방식을 비교하고 있다. 본격적으로 웹 사전(사전의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논의는 정철(2006), 정철(2008), 강현화(2009), 홍재성(2009)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 웹 사전이나 웹 사전 사용 환경에 대한 소개에 가까운 개괄의 성격을 띠거나(정철(2006), 정철(2008)), 변화하는 언어 환경에 주목하여 참여형의, 다매체 등을 고려한 새로운 형태의 사전이 필요함을 주장(강현화, 2009)하고 정보화 사회에서 자연어 처리 시스템, 코퍼스 탐색 기술과 사전 텍스트 처리 기술 등의 개발·활용의 가능성을 탐색하면서 사전 집필 방식 및 사전 정보의 변화(홍재성, 2009) 등을 개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유현경(2011: 203-204)에서는 국어사전 편찬의 현황을 발행 기관별, 사전 특징별로 개괄하면서 사전이 앞으로는 언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온라인 사전 중심으로 진행될 것임을 전망하고 있다. 최근 디지털 환경에서의 사전에 대한 구체적인 변화 양상 및 사전의 편찬 방향에 대해서는 배연경(2019), 장경식(2019), 도원영(2019) 등이 참조할 만하다. 배연경은 해외 디지털 사전의 사례를 개괄하면서 사전 편찬이 대중화되고 사전의 구조적 해체, 정보의 융합, 사용자 맞춤형 콘텐츠라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사전의 변화, 발전 양상을 기술하고 있다. 장경식(2019)의 논의는 국어 사전이 아닌 백과사전의 웹 서비스를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으나 현재 국어 사전이 백과사전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참조할 만하다. 장경식(2019)은 사전이 다루고 있는 ‘지식’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정보화 사회에서 지식을 효용성 있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식의 유의미한 비선형적 구조’, ‘사용자 환경에 맞춘 지식의 재가공’, ‘멀티미디어와 텍스트의 효율적

결합’, ‘사용자군에 적합화한 다층적 구조화’, ‘사용자 참여의 확대와 유희’라는 웹 사전에서의 지식의 특징과 구현 방향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국어 사전에서 다루는 사전 내용에도 충분히 반영될 만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도원영(2019) 역시 사전 편찬 환경의 변화, 사전 유통 환경의 변화, 사전 편찬 주체의 변화 등을 중심으로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며 사전에 대한 프레임을 새롭게 구성하고 다양한 사전이 편찬되어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 III. 국어사전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및 사용 양상

#### 1.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본고에서는 20대 이상의 성인 남녀 256명을 대상으로 사전 이용 양상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2019년 11월 온라인 설문 플랫폼을 통해 일주일간 설문을 진행했으며 응답자들은 전국 및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 내지는 한국어 구사자로<sup>5)</sup> 남성 140명, 여성 114명<sup>6)</sup>이었으며 이 중 국어 관련 업무 및 전공자는 성별 구분 없이 24명으로 전체 21.9%에 해당하였다. 조사 내용은 크게 국어사전 이용 여부, 국어사전 이용 현황, 사전에서 찾는 정보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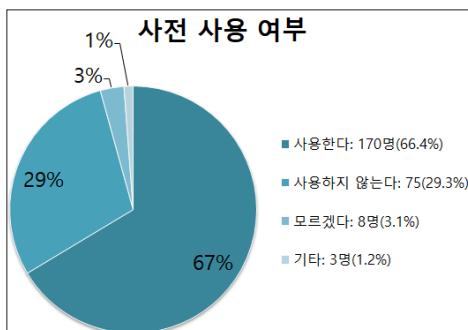
- 
- 5) 이와 관련하여 국립국어원에서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국어사전 사용자 인식 조사를 실시하고 이후 이에 대해 사전 사용자 6명을 대상으로 FGI를 진행한 것을 참조할 만하다. 국립국어원(2019)에 따르면 국민의 32.9%가 국어사전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자주 이용 4.2% + 가끔 사용 28.7%) 사전 이용자의 특성은 ‘남성’(34.9%)이 ‘여성’(31.2%)보다 약간 높았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이용률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20대 49.2%, 30대 42%, 40대 33.2%, 50대 25.8%, 60대 14.5%). 전반적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이용률이 높았고 독서 시간 및 인터넷 검색 빈도와 비례하는 경향을 보였다.
  - 6) 성별을 밝히지 않은 사용자도 2명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은 사전 사용자가 아니어서 이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종류, 국어사전에서 찾는 단어의 성격, 단어 검색 양상, 국어사전 개선 방향 등으로 구성하였다.

이 연구에서 시행한 조사는 전체 국민의 사전 사용의 경향을 보려는 것 이 아니라 인터넷을 익숙하게 사용하는, 그래서 웹으로 국어사전도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성인들 중에서 국어사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사전에 무엇을 기대하고 사전에서 무엇을 찾는지를 보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인 터넷 SNS를 통해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에 응한 피험자들은 기본적 으로 모바일/인터넷 환경에 익숙한 피험자라 전제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국어사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응답<sup>7)</sup>에 비해서 적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 2. 사전 사용에 대한 인식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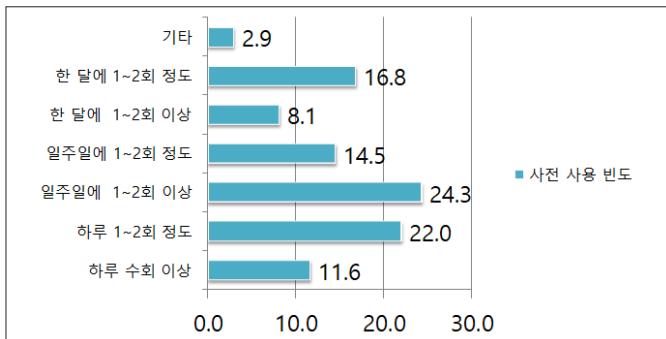
평소에 국어사전을 사용하는지 여부에 대해 256명 중 ‘사용한다’는 응답은 기타 포함 173명(67.6%)이고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75명(29.3%), ‘잘 모르겠다’는 8명으로 응답자의 1/3 정도(총 32.4%)가 국어사전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생각



〈그림 1〉 국어사전 사용 여부에 관한 응답

7) 국립국어원(2019)에서는 전체 응답 중 약 67.1%가 ‘사전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다만 국어사전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자 가운데에도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모르는 단어를 입력하여 검색한다’고 응답한 ‘포털 단어 검색 사용층’이 전체의 39.9%로 나타나 이 중 의식하지 못한 채 사전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있을 것이라는 점과 사전 검색과 포털 검색을 구별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8)</sup> 기본적으로 전국단위의 조사에 비해 사전 사용률이 높게 나타났고 기타 응답은 ‘국립국어원 홈페이지 검색’, ‘온라인 국어사전 사용’, ‘필요에 따라 사용’ 등이어서 이들은 모두 사전 사용자에 포함하였다.



〈그림 2〉 사전 사용 빈도

사전 사용 빈도에 대한 질문에 하루 수 회 이상도 20명 정도(11.6%)였고, 하루 1~2회 정도는 38명(22.0%) 일주일에 1~2회 이상은 42명(24.3%)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 일주일에 1~2회 정도는 25명(14.5%), 한 달에 1~2회 이상은 14명, 한 달에 1~2회 정도도 29명(16.8%)정도 되어서 자주 사용하는 사용자부터 드물게 사용하는 사용자까지 비교적 이용 빈도가 높은 편이었다.<sup>9)</sup> 하루 수회 이상의 적극 사용자가 항목 외에는 비전공자의 빈도도

- 
- 8) 실제로 이런 응답을 한 사용자들에게 심층적으로 질문을 하면 ‘사전’이라 이름지워진 매체를 이용하지 않을 뿐 포털에서 단어 검색을 하거나 다른 방안으로 사전을 찾는 것과 유사한 행동을 할 수 있으나(2019 국립국어원 국어사전 사용자 인식 조사 참조) 본고에서는 사전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전을 ‘왜’ 이용하지 않는지, 혹은 어떤 ‘경로’로 사전을 이용하는지보다 ‘사전’이라고 인식하고 ‘사전’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어떤 경우에(공적/사적), 어떤 정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이러한 응답을 한 83명의 조사는 추가로 시행하지 않았다. 이에 이후 모든 조사 결과는 사전 이용자 173명을 대상으로 한 응답이다. (비전공자의 경우 200명 중 121명에 해당한다.)
- 9) 기타 응답으로는 ① 1년에 10회 또는 그 이상이나 상황에 따라 다름. ② 1년에 2~3회 정

비슷하게 나타났다.

평소 이용하시는 국어사전은 몇 가지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두 가지 이상이라는 답변이 55.5%로 반수 이상이었다. 이는 비전공자 역시 전체 121명 중 62명으로 51.2%에 해당하여 사전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대부분 두 개 이상의 사전을 사용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평소 어떤 경우에 국어사전을 사용하는가 하는 질문에는 다음과 같은 양상이 나타났다. 질문은 주로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 표현과 이해 차원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었는데 (복수 응답으로 4개까지 응답 가능) 가장 많이 선택된 응답은 일상에서 낯선 어휘를 접했을 때(82건, 47.4%)와 공식적인 글을 쓸 때였고, 그 다음으로 많은 응답은 공개적인 글을 쓸 때(77건 44.5%), 일상에서 모르는 전문용어를 접했을 때(72건, 41.6%)가 그 뒤를 이었다. 그에 비해 학술 연구와 관련해서는 비교적 낮은 빈도로 이용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밑줄은 연구자)

- 업무용 문서를 작성할 때 61(35.3%)
- 공식적인 글(기고 출판 보도 등)을 쓸 때(구두 발표용 원고 포함) 82(47.4%)
- 공개적인 글(SNS 등)을 쓸 때(구두 발표용 원고 포함) 77(44.5%)
- 학술적인 글(논문 등)을 쓸 때(구두 발표용 원고 포함) 44(25.4%)
- 시, 소설, 수필, 노래 가사 등을 창작(예술적인 활동)할 때 19(11%)
- 일상에서(독서, 대화, TV, 인터넷, SNS, 뉴스 등)에서 모르는 단어(전문용어)를 접했을 때 72(41.6%)
- 일상에서(독서, 대화, TV, 인터넷, SNS, 뉴스 등)에서 모르는 단어(신조어)를 접했을 때 52(30.1%)
- 일상에서(독서, 대화, TV, 인터넷, SNS, 뉴스 등)에서 모르는 단어(낯선 어휘)를 접했을 때 82(47.4%)

---

도 ③ 두달에 10번 정도 ④ 맞춤법이나 어휘에 궁금증이 생길 때마다 수시로 ⑤ 아주 드물게 사용함 등이 있었다.

- 전문 분야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 중에 모르는 단어(전문용어)를 접했을 때  
21(12.1%)
- 전문 분야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 중에 모르는 단어(낯선 어휘)를 접했을 때  
24(13.9%)
- 국어 공부 등 국어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12(6.9%)
- 취미 삼아 9(5.2%)

응답을 보면 여전히 사전은 ‘모르는 단어’의 정보를 찾을 때 가장 유용한 참조 매체라 할 수 있다. 또한 말이나 글을 ‘공개’해야 할 때 사용하는 언어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업무나 학업 등 전문 영역에서는 국어사전을 사용하는 양상이 조금 덜 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국어사전이 이용자들에게 전문 분야에 효용이 되기보다 ‘일상적인 언어 생활’에 좀 더 실용적인 매체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 외 기타 응답은 다음과 같다.

- ① 맞춤법 확인용 ② 띠어쓰기 등을 찾아볼 때 ③ 일할 때(출판사) ④ 번역어를 고르느라 ⑤ 아는 단어의 정확한 용법을 확인하고 싶을 때 ⑥ 평소 알던 단어지만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 때 ⑦ 괄호 안 한자 표기가 필요한데 오락가락할 때 ⑧ 일상생활 중 사용하는 단어에 대해 확신할 수 없을 때 확실히 일기 위해 ⑨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정확한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타 응답을 통해 설문에서 세부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던 글을 쓸 때, 업무를 할 때 ‘무엇을’ 찾는지를 막연하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정확한’ 한자/띠어쓰기 표기, ‘용법’ 등을 확인하는 경우라 볼 수 있겠다. 경향은 비슷해서 규범을 포함한 ‘정확한’ 언어 정보를 확인하고자 할 때 주로 사전을 이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단어의 어떤 정보를 찾기 위해 사전을 활용하는지 응답을 확인해 보았다.

[주로 단어의 어떤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사전을 찾으십니까?]

예상했던 바와 같이 사전에서 가장 많이 찾는 정보는 ‘단어의 의미’이다. 그 다음으로 ‘용례’, ‘철자’ 등이 뒤를 이었으며 원어(한자어 정도 등)을 확인하는 경우도 비교적 많았다. 단어의 원어를 확인하는지 여부는 비교적 골고루 사용 양상이 나타난 편이고 기타 응답에서도 ‘한자 정보’를 확인한다는 응답이 종종 보이는 만큼 이는 주로 한자어의 한자 정보를 확인하는 용도로 사전의 정보를 확인하는 경향을 반영한 것이라 생각된다.

〈표 1〉 사전에서 주로 찾는 단어의 정보

사전에서 찾는 단어의 정보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단어의 의미	129(75%)	30(17.4%)	9(5.2%)	4(2.3%)
단어의 철자	64(37.2%)	58(33.7%)	33(19.2%)	17(9.9%)
단어의 원어(한자, 외래어)	54(31.2%)	59(34.1%)	43(24.9%)	17(9.8%)
어원 및 역사 정보	39(22.7%)	39(22.7%)	63(36.6%)	31(18%)
발음	17(9.8%)	24(13.9%)	60(34.7%)	72(41.6%)
용례	63(37.6%)	69(45.7%)	24(13.9%)	5(2.9%)
문법 정보(품사, 어미 활용 등)	33(19.1%)	61(35.3%)	51(29.5%)	28(16.2%)
관련어(유의어, 대립어 등)	30(17.3%)	62(35.8%)	56(32.4%)	25(14.5%)
표준어 여부 및 관련 지역어	29(16.8%)	50(28.9%)	52(30.1%)	42(24.3%)
단어와 관련된 시청각 자료	8(4.6%)	21(12.1%)	49(28.3%)	95(54.9%)

문법 정보, 관련어, 표준어 여부 및 관련 지역어를 확인하는 응답에서는 ‘보통이다’에 해당할 만한 경향성이 나타나는데 이는 사전을 찾을 때 주로 소위 ‘주’가 되는 영역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언어 정보’라 하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라는 차원에서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발음 정보나 멀티미디어 정보는 상대적으로 이용빈도가 매우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외에

기타 다음과 같은 정보들을 확인한다는 응답이 있었다.

- ① 띄어쓰기 ② 맞춤법 ③ 1번 뜻풀이 쓰임 확인 분야별 의미 정보 ④ 등재어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sup>10)</sup> ⑤ 한 단어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⑥ 특정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⑦ 띄어쓰기 ⑧ 신조어(포털사이트 등에서 확인) ⑨ 사전 등재 용어 여부 ⑩ 용례, 그 단어가 사용된 문학, 학술지 속의 문장 ⑪ 의미 전용 확인 ⑫ 고유어 여부 ⑬ 활용법을 알기 위해 예문을 찾습니다 ⑭ 잘 몰랐던 같은 의미의 다른 단어 등 ⑮ 한자표기로 무엇인지 ⑯ 띄어쓰기 정보(가장 어렵고 찾기도 힘들다) ⑰ 오픈 국어사전에서 인터넷 유행어 등을 참고함 ⑱ 어떤 한자가 쓰였는지 ⑲ 예시로 어떤 문장이나 소설 일부가 삽입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편입니다 ⑳ 순한글말 ㉑ 띄어쓰기를 위한 정보 확인 ㉒ 실제 쓰임과 다른 사전적 의미를 알고 싶을 때 ㉓ 첫 글자나 끝 글자가 같은 단어를 검색하기 위해

조사 결과 및 기타에서 나타난 응답을 모두 포함해 정리해 보면 국어사전 사용자들이 사전을 통해 주로 확인하는 정보는 당연하게도 단어의 뜻풀이가 가장 많았지만 그 외에는 주로 표기 및 규범(맞춤법, 띄어쓰기 정보 ①, ②, ⑤, ⑦, ⑨, ⑯, ㉑), 원어(한자 ⑮, ⑯), 용례(③, ⑩, ⑬, ⑲) 등이었다.<sup>11)</sup> 이를 통해 확인

10) ⑥번 ⑨번 같은 경우는 사전(특히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의 경우)에 등재되어 있으 면 표준어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나 사실 이는 오해에서 비롯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전에 등재된 단어가 모두 표준어인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한 문제 는 사전에 대한 교육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라 하겠다.

11) 이는 국립국어원(2019) 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전 이용 목적은 ‘단어의 의미를 알기 위해’(89.4%), ‘표준어, 맞춤법을 확인하기 위해’(80.9%)가 가장 높게 나와 사전 사용자 들이 사전을 규범을 확인하는 용도로도 상당히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경우(2018)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 어문기자들 및 편집기자들은 띄어 쓰기, 뜻풀이, 표기 정확성 확인, 용례 확인 등을 위해 찾는 빈도가 높았다. 특이한 점은 아 나운서들의 경우 ‘발음’ 확인이 1위로 나타났는데 직업 특성상의 차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전에서 ‘정확한 정보’, ‘규범에 맞는 표현’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향이라는 점에서는 일치

할 수 있는 것은 국어사전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게 되는 정보는 결국 가장 ‘국어사전적인’ 부분에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신뢰성 있는 규범 역시 다양해진 언어 자원 속에서 사전을 찾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어떤 종류의 단어의 정보를 찾고 싶을 때 국어사전을 이용하십니까?)

이 질문은 단어의 특성이나 단어가 담고 있는 정보에 따라 해당 단어의 정보를 국어사전에서 찾고자 하는지를 묻는 질문이다. 일반적으로 ‘쏠다’, ‘톺아보다’와 같은 보통의 동사, 명사, 형용사의 정보(뜻풀이, 용례 등)은 당연히 사전에서 찾는 것이라 기대할 수 있지만 인명, 지명과 같은 고유명사나 학술적 전문용어 등에 대해서도 국어사전을 통해 정보를 찾는지 등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 사전에서 주로 찾는 단어의 종류

	매우 그렇다	그렇다	총합
분야별 전문용어	42(24.4%)	36(20.9%)	78(45.3%)
인명	17(9.8%)	22(12.7%)	39(22.5%)
지명	10(5.8%)	24(13.9%)	34(19.7%)
책명 및 작품명	6(3.5%)	13(7.5%)	19(11%)
지역어	51(29.5%)	72(41.6%)	123(71.1%)
북한어 <sup>12)</sup>	34(19.7%)	51(29.5%)	85(49.2%)
외래어	50(28.9%)	74(42.8%)	124(71.7%)
신조어 및 유행어	27(15.6%)	52(30.1%)	79(45.7%)

한다고 볼 수 있다.

- 12) 북한어 범주는 조금 모호한 면이 있다. 북한지역의 방언과 남한의 표준어에 해당하는 문화어의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남한에서 사용하지 않아 뜻을 알 수 없는 낯선 북한어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그 외에도 사전을 통해 찾는다는 단어들은 다음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다.

① 순우리말, ② 유의어와 반의어 ③ 한자 ④ 맞춤법 띄어쓰기 또는 비슷해서 헷갈리는 단어 ⑤ 철자가 의심스러운 단어 ⑥ 어원 ⑦ 사자성어 ⑧ 유의어 ⑨ 고유어(순 우리말) ⑩ 전문용어 ⑪ 같은 발음인 한문 유의어 동의어 ⑫ 사어, 폐어 ⑬ 한자어 ⑭ 옛날 한자어 ⑮ 옛날 소설 속 형용사 뜻 ⑯ 한자 문화권의 같은 의미 단어 ⑰ 분야마다 의미역이 상이한 학술용어 ⑱ 맞춤법이 헷갈리는 단어 ⑲ 외래어나 유명인의 이름, 지명 등의 용어는 정확한 표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국어사전의 표제어를 반드시 확인한다 ⑳ 복합 문법형태 예) 더라고요. ㉑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정확한 뜻은 모르거나 애매하게 아는 경우. ‘일부러’와 ‘부러’는 비슷한 단어가 맞는지 궁금해진다거나.. ㉒ 아주 널리 사용되지는 않더라도 특정맥락을 담고 있는 (순)한글어휘. ex. 투아보다

조사에서는 어종에 대해 개괄적으로 질문했다면 기타 응답을 통해서는 해당 어종의 세부적인 유형이나 어떤 경우에 단어를 찾게 되는지를 좀 더 확인해 볼 수 있게 된다. 두드러지는 것은 앞서 어떤 정보를 확인하는가의 질문과 궤를 같이 하여 ‘맞춤법이 헷갈리거나 정확한 표기를 모르는 단어’의 정보 확인을 위해서 사전을 찾는 경우가 계속 확인된다는 점이다. 또한 포털 등에서 쉽게 검색되지 않는 옛말, 순우리말 형용사 등에 대한 수요도 제법 보인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앞서 ‘어떤 경우에 국어사전을 사용하는가’의 답변과 다소 모순되기는 하지만 전문용어를 확인하는 경우도 제법 보인다는 점도 국어사전이 어떤 단어를 제공해야 하는가에 대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단어의 검색 양상은 어떻게 되십니까?)

마지막으로 단어 검색 양상에 대해 조사해 보았다. 이는 전반적으로 사

전 및 정보를 활용하는 태도와 인식에 대한 문항이라 할 수 있다. 사용자의 검색 양상이 중요한 이유는 사전 사용자들이 정보를 어떤 경로로 얻으며, 정보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 단어 검색 양상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모르는/낯선 단어가 나오면 일단 포털 검색창에 검색한다.	81 (47.1%)	62 (36%)	24 (14%)	5 (2.9%)
모르는/낯선 단어가 나오면 일단 사전을 찾는다(사전 사이트/사전 서비스를 방문한다)	71 (41%)	59 (34.1%)	26 (15%)	17 (9.8%)
단어의 종류나 특성에 따라 찾을 매체(사전, 관련 사이트, 포털, 책 등)을 구별한다	89 (51.7%)	51 (29.7%)	18 (10.5%)	14 (8.1%)
단어를 찾을 때 함께 자주 쓰이는 단어나 표현을 확인하는 편이다.	77 (44.5%)	67 (38.7%)	20 (11.6%)	9 (5.2%)
한 단어의 뜻/정보를 찾기 위해 여러 국어사전을 찾아본 적이 종종 있다.	39 (22.5%)	53 (30.6%)	57 (39.2%)	24 (13.9%)
한 단어의 뜻/정보를 찾기 위해 여러 종류의 사전(어학 사전, 백과사전, 오픈사전 등..)을 찾아본 적이 종종 있다.	75 (43.4%)	69 (39.9%)	16 (9.2%)	13 (7.5%)
단어의 뜻/정보를 찾을 때 사전이 아닌 다른 자료들을 활용한다	37 (21.5%)	77 (44.8%)	48 (27.9%)	19 (5.8%)
단어의 뜻/정보를 찾을 때 정보의 출처나 사전의 종류를 확인한다.	66 (38.2%)	63 (36.4%)	29 (16.8%)	15 (8.7%)
사전마다 뜻풀이가 다른 것은 바람직하다.	37 (21.4%)	66 (38.2%)	52 (30.1%)	18 (10.4%)

조사 결과 온라인 사전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전이나 포털 등 정보에 접근성이 좋아서인지 정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찾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본적으로 낯선 단어나 정보를 찾을 때는 습관적으로 포털을

확인하는 것 같으나(83.1%, 답변의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의 합), 사실 포털 안에도 어학 사전 세션이 있어 이를 구별해서 찾는지까지는 확인할 수 없었으나, ‘사전’을 찾는다는 다음 문항의 조사 결과(75.1%)를 참조할 때 이러한 행위가 일종의 ‘사전’을 찾는 활동과도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sup>13)</sup>

또한 사전 이용자들이 다양한 사전을 구별하여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고, 정보의 출처 등도 정보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국어사전에서 찾는 정보가 매우 ‘언어 메타적인 정보’에 대한 것이라는 경향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다른 지식 정보는 다른 경로(백과사전, 이론서) 등을 통하여 국어와 관련된 국어 메타 정보에 대해서는 ‘국어사전’을 찾는다는 점이다. 그 외 국어사전에 대한 개선 요청 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주관식 설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응답이 나왔다.(일부 발췌)<sup>14)</sup> 여기서 제시된 요청 내용은 앞으로 국어사전을 운영해 가는 데 참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 더 많은 예시문장
- 풀이가 너무 단편적이다
- 업데이트가 느린 점. 최근에 쓰는 용례랑 다른 단어 등
- 표준국어대사전의 경우 올바른 표기를 써야 검색이 되기 때문에 단어가 가물

13) 이에 대해서는 국립국어원의 조사 자료를 참조할 만하다. 2019년 국립국어원 국어사전 사용자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찾는 단어를 검색’(91.2%)하여 온라인 국어사전 서비스로 접근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포털사이트의 국어사전 메뉴’(58.4%)를 통해서, ‘주소창에 찾는 단어를 직접 입력’(28.9%)해서, ‘즐겨 찾기나 바탕화면 바로가기로 설정’(21.3%)하여 접근한다는 순으로 응답하였다.

14) 이에 대한 국어원 조사 결과도 비슷한 양상을 띤다. 국어사전 개선 사항으로는 ‘실제 사용 되는 혁신 사용례의 부족’(51.1%)이 가장 높고, ‘사용자의 수준을 고려한 수준별 설명 부족’(46.5%), ‘의미를 이해하는 데 불충분한 설명’(42.6%), ‘단어의 어원에 대한 정보 부족’(32.8%), ‘전문성이 떨어지는 설명’(10.6%)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2018)의 조사에서도 뜻풀이를 쉽게, 활용형을 더 많이 싣고, 문법적인 설명과 비표준형 낱말에도 뜻풀이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 국어사전에서 바라는 대표적인 개선 사항이었다.

가물한 경우 찾기가 어려움

- 다양한 용례의 제시
- 예전 사전 집필 내용을 답습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저 풀이를 위한 풀이에 그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유의어, 대립어 등이 나오지 않음. 네이버 사전에서는 나옴.
-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등재돼 있지 않은 단어는 검색 결과가 없다고 나옴. 네이버 사전에는 그런 단어가 없더라도 표준어는 아니지만 어떤 용례로 쓰이는지 검색 결과가 뭐라도 나옴.
- 어원을 병기 했으면
- 지나친 전문용어 및 고유명사 줄이고 어학 사전에 알맞게 어원 및 용례 보강
- 어린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쉬운 말로 풀어 쓴 사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유의어검색이 좀 더 정밀하게 바랍니다
- 문법형태 정보 부족. 전문 언어사전 필요. 전문용어는 백과사전이 담당하면 좋겠음. 적어도 매체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우리말샘에 바로바로 등록해주세요
- 생활에서 쓰이는 용례가 많았으면
- 단어 활용 용례가 풍부했으면 함
- 예문을 찾으면 다시 어려운 국어가 또 나와서 예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다시 사전을 뒤지는 루프를 돋니다. 이것만은 너무 불편했어요.
- 양이 방대해질 수 있으나 신조어 혹은 새로 생기는 학술용어 등의 간신이 더 빠르게 이뤄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용례가 다양할수록 좋고, 흔히 잘못 쓰는 표기도 넣어 바쁜 단어로 찾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좋다
- 동의하기 어려운 뜻풀이. 유의어 뭉치를 찾기 어려움. 용례가 더 풍부하고 문학적 어구가 더 많이 삽입되기를 바람(특히 디지털사전이나 사전 사이트라면 분량 제한 없이 풍부한 용례가 제시되기를)

- 좀더 다양한 예문. 다양한 관련어.
- 띠어쓰기 규칙 확인이 편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결국 국어사전 이용자는 ‘언어’의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국어사전에서 확인하고 싶어한다. 여기서 ‘다양함’은 용례 등의 풍부함, 현재성 등을 의미하며 사전 이용에서 ‘규범적인 정확성’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로 언급이 되는 것은 단어의 언어적인 메타 정보(의미를 비롯한 표기, 활용 등)과 용례이지만 전문용어에 대한 수요도 적지 않아 국어사전에서 전문용어를 다룰 때 어떤 정보를 어디까지 다룰지에 대한 고민 역시 꾸준히 진행해야 할 주제라 여겨진다.

## IV. 변화하는 국어사전의 방향: 국어사전은 결국 ‘국어’ 사전이다.

### 1. 국어사전의 변화 양상

이상의 설문을 통해 국어사전 이용자들이 사전을 통해 주로 확인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뜻풀이, 용례와 함께 표기와 같은 규범 정보, 한자 정보 등의 원어 등 ‘언어’ 내적인 정보를 주요한 정보로 확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일반적인 단어 외에도 신어, 학술용어 등도 국어사전에서 확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국어사전에는 어떤 단어가 어떤 식으로 실려 있을까? 실제로 표준국어대사전을 기준으로 표제어 수는 약 42만여 개이고,<sup>15)</sup> 이 중에서 전

---

15) 2020년 6월 기준 423,172개의 단어가 등재되어 있다.

문용어에 해당하는 표제어는 약 20만 여 개로 전체 등재된 단어의 대략 절반에 해당한다. 인문, 사회, 자연, 산업, 보건, 공학, 예체능, 종교 등 분야가 다양하며 이중 인명 10,407개 지명7,100개, 책명 2,122개 외에도 고유명 일반 417개 등이다. 개방형사전인 우리말샘에서는 이러한 양상이 더욱 확대되어 있는데 구를 포함한 전체 표제어는 1,121,169여 개로 이 중 전문용어는 596,461개이다.<sup>16)</sup>

사전 사용 양상을 보면 인명이나 지명, 책명 등은 사전에서 잘 찾지 않는 정보군에 속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전 내에 이런 단어들이 일정 비율을 넘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어 단어’라는 용어의 특수성 때문일 것이다. 기본적으로 그 성격이 어떠하든 국어로 소통되는 데 사용되는 모든 단어들은 국어 단어의 자격을 얻게 되고, 여기에는 전문용어나 고유명들 역시 포함되기 때문이다. 처음 사전이 집필되고 유통되기 시작하던 시절에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참조가 되는 자원이 국어사전 혹은 백과사전에 국한되었기 때문에 국어사전의 초기 형태는 1) 국어 단어의 표기 등의 규범을 정비하고 2) 다양한 종류의 국어 단어를 등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두 가지 역할을 고루 수행했어야 했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본 틀이 구성된 상태로 기술이 발달하고 정보의 원천이 다양해지면서 사전은 기본 틀을 유지한 상태로 그 내용을 풍부하게 갖추어 오게 되었다. 특히 분량의 제한이 없고 매체의 운용이 자유로운 웹사전의 형태가 되면서 국어사전이 담게 되는 표제어의 수와 정보의 양은 폭발적으로 확장되고 발전하게 되었다. 도원영(2019 ㄱ)에서는 웹서비스 사전의 특징으로 ① 미시 정보의 분절화, 사전의 구조적 위계가 느슨해짐, ② 사전 간 정보의 수평적 연결과 통합이 용이함, ③ 사전, 비사전 간 결합이 이루어짐 ④ 이용자

---

16) 2020년 6월 기준 우리말샘에 등재된 전문용어의 분야는 총 8개 대분류에 63개의 소분류로 매우 세분화되어 있다. 이외에 명칭에 해당하는 인명은 14,180개, 지명 17,855개, 책명 3,011개 고유명 일반에 속한 단어는 580개 정도이다.

참여형 사전이 증가함 ⑤ 이용자 성향에 부합하는 검색 결과 제공이라는 다섯 가지의 특징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국어사전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사전에서 다루는 미시 정보가 매우 다양해지고 세분화되었으며 언어로 된 설명뿐 아니라 단어를 표현하는 데 좀 더 효과적인 멀티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도 하게 되었다.<sup>17)</sup> 단어의 뜻풀이 정보를 제시할 때 함께 활용되는 각종 시청각 자료도 풍부해지고 다양해졌으며 표제어의 종류도 매우 확장된 바 있다. 그려면서 국어에 대한 다양하고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방향으로 풍부한 내용을 담게 된 국어사전은 어떤 면에서는 백과사전 같기도 하고, 용어사전 같기도 하며, 또 어떤 면에서는 국어사전이기도 하다.<sup>18)</sup> 어휘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구성 요소들을 분석하고자 할 때 지시적 의미뿐 아니라 연상적 의미 사회적 의미뿐 아니라 다양한 백과적 정보를 포함하기도 하는 만큼 백과적 정보가 국어사전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일 수도 있다. 그러나, 같은 지명에 대한 정보라고 할지라도 국어사전에서 제공해 줘야 하는 정보의 성격과 양, 질과 백과사전에서 제공해줄 수 있는 정보의 양과 질은 분명히다를 수밖에 없다. 인명이나 지명 등 백과적 지식이 해당 단어의 ‘의미’가 되는 단어의 경우에는 국어사전에서 이 백과적 정보를 ‘지식의 제공’이 아니라 ‘언어적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기공하고 압축하여 제시해 줄 수 있는지가 국어사전의 정체성을 드러내 주는 일이 될 것이다.

- 
- 17) 강현화(2009: 23)에서는 국어사전의 한계로 현행 사전이 언어학적 연구 결과에 기댄 채 비전문집단인 일반 국민의 수요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하면서, 뜻풀이가 어렵거나 전문적인 뜻풀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한계는 이제 거대 언어 자원 구축을 통해 적정한 수준의 설명을 찾는 등의 방식으로 보완이 가능하기도 하고, 사진이나 영상을 첨부하면서도 극복할 수 있다고 하겠다. 이는 웹사전의 장점이라고도 할 수 있다.
- 18) 정철(2008: 96)에서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롱맨 컬쳐 영어 사전, 코지엔 등의 사전들을 예로 들면서 몇몇 대사전과 어학 사전에서는 어학 사전과 백과사전의 경계가 허물어져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의사소통의 기본이 되는 어휘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별다른 변화가 없는 데 비해 시대나 사회의 변화에 따라 급격한 변화를 겪는 명사, 그 중에서도 고유명사 등을 사전에 반영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변화라 보았다.

정철(2008: 96)은 포털 서비스의 사용자의 로그를 분석해 백과사전 서비스에서 어학 사전의 어휘를 검색하는 등 사용자들이 어떤 단어를 어떤 사전에서 찾아야하는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여기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겠으나<sup>19)</sup> 같은 단어라 할지라도 어학 사전에서 좀 더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정보와(사투리, 은유적 표현 등이 포함된 사용 예 등), 백과사전에서 확인하는 것이 더 정확하고 풍부한 정보(학문적 정보 등)의 차이를 사전별로 설명하게 구별해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사전의 특징별로 정보의 차이가 설명하게 부각되면 순차적으로 이용자들이 필요한 정보와 정보원을 구별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막대한 양의 정보들을 다양한 경로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국어사전이 다른 여타의 백과사전이나 전문 지식/용어 사전과 달리 존재할 수 있는 정체성, ‘언어를 중심으로 한’, ‘언어적 소통을 지원하는’ 언어사전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이를 튼튼하게 하는 방향을 수립하는 일이 될 것이다.

## 2. 국어사전이 나아가야 할 방향

결국, 정보가 아무리 다양해지고 언어 자원이 풍부해지더라도 이를 통해 지향해야 할 것은 ‘언어 사전’으로서의 ‘국어사전’이 무엇이며, ‘국어사전’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집중하는 문제이다. 즉 ‘무엇을 얼마나’에 앞서 전체적인 ‘방향’을 먼저 수립해야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사전이 풍부해지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여기서는 앞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개괄적인 방향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

19) 이에 대해서는 사전의 종류나 개별 특징에 대한 교육의 문제, 정보를 제공해주는 종합 창구로서의 포털의 성격 등이 현상에 대한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 1) 국어사전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국어 단어 등재

아무리 정보가 가득하다고 해도, 사이버 세상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매우 ‘현대적 - 동시대적’이며, 특정 단어에 대해 어마어마한 양의 사용 예(문장)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결국 단어가 동시대적이거나 매우 기초적인 어휘의 경우에 한한다. 가령 지금은 잘 쓰이지 않는 단어 ‘손열하다’를 포털에서 검색해 보자.

〈표 4〉 단어 ‘손열하다’ 검색 결과(네이버, 구글)

The screenshot shows two search results side-by-side. On the left is the Naver search results page for '손열하다'. It lists several links, including one from th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국립국어원) and another from the Korea Herald (한국일보). On the right is the Google search results page for the same query. It also lists several links, including one from th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국립국어원) and another from the Korea Herald (한국일보). Both pages show that the term is not widely used or well-known.

다소 낯선 어휘인 ‘손열하다’는 ‘남보다 모자라고 신분 따위가 낫다’라는 의미를 지닌 형용사로 구글, 네이버 등의 포털에 검색을 하면 네이버의 경우에는 사전에 제시된 뜻풀이를 제외하고는 아무 정보가 제시되지 않고 구글에서는 다른 사전의 정보 정도만 제시되고 고유명사로 쓰인 사례만 일부 확인된다.(고유명사 ‘손열’은 다른 단어이다.)

이 단어는 현대의 텍스트에서는 사용 양상을 찾기가 어렵고 말뭉치 자료를 검색해도 용례가 많이 나오지 않지만 ‘조선왕조실록(세종 18년 병진)’이나 김익의 ‘죽하집(竹下集)’, 이서구의 ‘척재집(惕齋集)’, 송병기의 ‘수종재집(守宗齋集)’, 최익현의 ‘면암집(勉菴集)’, 전우의 ‘간재집(艮齋集)’, 신기선의 ‘양원유집(陽園遺集)’, 조상경의 ‘학당유고(鶴塘遺稿)’, 서종급의 ‘퇴헌유고(退

軒遺稿)', 이채의 '화천집(華泉集)' 등 다양한 고전 문헌에서 발견이 되는 데 이러한 고전텍스트들은 국어의 중요한 자산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 이 말을 살려 쓰기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문화유산을 향유한다는 맥락에서 이 단어가 어떤 장면에서 사용되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은 국어사전이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이다. 이는 이런 낯설고 빈도가 낮은, 고어라 하기는 어려우나 현대어에는 많이 사용되지 않는 '단어'에도 뜻풀이와 용례 등을 제공해줄 수 있는 역할은 국어사전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영역이라는 것이다. 국어사전이 '국어 자원'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일반 어휘에 대해 좀 더 공을 들여야 한다는 맥락이라고도 할 수 있다.

## 2) 표제어 검색 방식의 확대

전통적으로 국어사전에서 단어를 찾을 때 고려하는 두 가지가 있다. 이 두 가지는 사전을 교육할 때 가장 먼저 익히게 하는 정보이기도 한데 용언의 '기본형'과 '자모 순서'에 따른 '사전 배열 순서'가 그것이다. 그러나 사전이 사실상 인쇄 사전을 벗어나 웹사전 형태가 되면서 표제어의 배열 정보는 크게 중요한 정보가 아니게 되었다. 다만 웹사전이 되고서도 여전히 사전의 기본형을 찾아야만 검색이 가능한 지점은 재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sup>20)</sup> 배연경(2013)에서는 사전 사용자들이 사전의 거시 구조나 미시구조 차원에서 목표 정보를 검색하는 데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사전 사용자들이 목표 정보를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교차 참조와 근접 검색 기능 등 거시 구조상의 검색 루트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국어사전에서는 단어의 정보로 제공해 주는 문형이나 형태 정보, 활용 정보를 넘어서서 '가고, 가니, 가서, 갔다'를 검색하더라도 '가다'가 나올 수 있는 방식으로 하는 일이 그에 해당하는 것이 될 수 있다. 또한 자주

---

20) 강현화(2009: 26)에서는 현행 웹사전은 종이 사전의 형태를 웹상에 올려놓은 형태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틀리는 오표기도 모두 검색이 가능하도록 해서 ‘인삿말’을 쳤을 때 ‘인사말’의 잘못이라고 보여주기보다 ‘인삿말’을 쳐도 ‘인사말’이 나오도록 하는 것도 웹사전이 구현할 수 있는 바람직한 기술적 적용이라 할 수 있다.<sup>21)</sup> 언어 정보화 작업으로 인해 다양한 언어 거대 자료가 구축되어 있는 만큼 단어의 다양한 활용 양상을 사전에 반영하여 이러한 정보들의 검색이 용이하도록 다양한 주는 것은 사실 웹사전이 가지는 강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 3) 의미 기술 방식의 세분화 및 정교화

다른 한편 국어사전은 의미를 기술해 주는 방식도 다양한 방식으로 확장이 가능할 것이다. 앞서 사용자들의 조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더라도 국어사전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결국 ‘단어의 뜻풀이’ 즉 의미 기술일 것이다. 그러나 조사에서 계속 언급된 것처럼 풀이말이 이해가 가지 않거나, 다른 유의어와 순환적이거나, 의미가 모호한 경우들이 여전히 많고 이를 단순히 특정한 ‘정의’ 방식으로만 극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정보화 사회를 지나 4차 산업 사회에 돌입한 현재, 다양한 언어 자원의 정보화가 가능해지면서 사전과 어휘 의미망에서의 의미 문제를 다루게 될 때는 의미 자체의 본질이 아니라 의미 표상의 문제를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게 되었다(이동혁, 2010: 4 참조) 특히 이에 대해 김진해(2008: 122)는 관련어는 뜻풀이에 제시되든, 예문에 제시되든, 길잡이말(guide word)이나 작용역(영역), 관련어 항목에 제시되든 해당 표제어와 의미적 관련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는데 이러한 관련어 정보, 의미망 구축은 언어정보화가 진행되면서 확실히 국어사전이 강점을 가지게 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21) 이러한 기술적인 적용에 대해 정철(2010)에서 이미 용언 활용태와 같은 비교대상어 확장, 불필요한 비교대상어 제거, 음절수 일치의 탈피, 외래어에서의 음운변동 등 패턴의 확장,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결과물 적용, 오용어 목록의 지속적인 개선 등을 제시한 바 있는데 현재까지도 웹 사전에서 이러한 기술들이 꽃넓게 적용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관련어 정보는 표제어의 뜻을 규정하기보다 뜻풀이로 나온 의미를 더욱 명확하게 하는 보조적인 기능으로 뜻풀이가 미처 다 해결해 주지 못하는 세부적인 부분을 보완해 주는 면이 있다. 종이로 인쇄된 사전에서는 관련어 정보는 양과 질에서 매우 부실할 수밖에 없고, 이 상태로는 의미의 명확성을 보여준다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또한 위의 그림에서도 보듯이 관련어는 그동안 유의어, 반의어 등으로 대표되어 온 면이 있다. 하지만 언어 자료가 거대하게 구축되면서 의미망도 좀 더 촘촘하게 그려질 수 있고 빈도 높게 함께 나타나는 인접어 등도 표시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여전히 인접하다는 것은 어디까지인지, 관련어 정보를 어디까지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고민은 남아 있다. 하지만 분명히 용례가 풍부하게 필요한 단어와, 용례가 없어도 되는 단어가 있을 것이고 각각에 대한 고민과 판단은 국어사전이기 때문에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것일 것이다.

#### 4) 뜻풀이 정보의 수준 및 층위 고려

앞서서도 국어사전과 백과사전, 기타 전문 용어 사전 등에서 사전 간의 경계가 모호해짐을 지적하면서 국어사전에는 전문용어를 비롯해 다양한 단어가 등재된 만큼 해당 단어들의 정보를 국어사전에서 어디까지 실을 것인가에 대해 본격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가령 일상적인 단어지만 전문 분야의 용어이기도 한 단어들은 국어사전에서 해당 의미 정보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얼마든 것이 타당할지에 대한 고민이다. 시간을 나타내는 단위인 ‘초’는 매우 일상적인 용어이긴 하지만 물리학의 용어이기도 하다. 이때, ‘초’에 대한 뜻풀이를 어디까지 보여주어야 할까. 다음의 사례를 살펴보자.

초(秒)	(기준) 한 시간의 3,600분의 1이 되는 동안을 세는 단위.
	(수정안) 세슘-133 원자의 바닥상태에 있는 두 초미세 준위 사이의 전이에 대응하는 복사선의 91억 9263만 1770 주기의 지속시간. 한 시간의 3600분의 1에 해당한다. 기호는 s.

‘초’에 대한 물리학적으로 정확한 지식인 ‘세슘-133 원자의 바닥상태에 있는 두 초미세 준위 사이의 전이에 대응하는 복사선의 91억 9263만 1770 주기의 지속시간.’이라는 뜻풀이가 국어사전을 뒤져서 ‘초’의 의미를 찾는 사람에게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까. 포털 등을 통해 다양한 자료들에 접근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제한적이고 압축적인 설명이 오히려 정밀한 개념에 오류를 유발하는 것은 아닌지 역시 살펴보아야 할 지점이다. 국어사전에서는 이를 일상어와 물리학 용어로 분리하고 일상어로서의 뜻풀이와 전문용어의 뜻풀이로 분리해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결국 지칭하는 대상은 같으므로 이 설명을 최대한 쉽게 풀어 접근하도록 해야 할 것인가. 지금의 국어사전은 이 두 가지 관점을 모두 취하는 방식으로 변해 왔다.

그러나 닮은 듯 다른 두 사전의 성격은 분명히 경계가 있다. 조남신 (2007: 189)은 Jackson(2002: 21)을 인용하여 ‘언어사전은 언어에 대한 책’이고 백과사전은 실제세계에 대한 책’이라고 구별하고 있다. 즉 언어 사전은 단어와 단어가 가진 정보, 언어에 대한 총체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사전이고 백과사전은 단어가 가리키는 실제 대상, 현상 등 확장된 지식 전반을 설명하는 사전으로 언어사전과 백과사전은 그 차이점을 통해서 확연히 구별할 수 있다.<sup>22)</sup> 그러므로 어학 사전으로서의 국어사전은 설혹 그 대상이 전문용어나 인명, 지명이라 할지라도 학문적 개념을 정교하게 반영하는 것보다 해당 학문적 용어가 일상적으로 사용될 때의 의미 양상, 정보를 정교하고 정확하게 담아내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필요할 것이다.

언어 거대 자료는 단어의 빈도나 난이도 등을 고려한 수준별 정보나 수준이 다른 유의어, 관련어 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다양한 메타 정보를 추출

22) 엠태경(2013)은 언어 사전은 언어에 속하여 범주화할 수 있는 단위들을 표제어로 등재하여 기술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문법적인 언어 단위들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언어 전의 특징이 백과사전과는 구별됨을 보여주었다(백과사전에 개별 조사나 어미 등이 등재 되지는 않는다). 또한 언어사전은 해당 표제어의 뜻풀이뿐 아니라 발음, 형태, 문법, 어원 등의 언어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선명한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다고 보았다.

할 수 있어 다양한 단어들의 뜻을 좀 더 수준별로, 영역별로 세분화하되 각 영역과 수준에 적합하게 찾아주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가능하리라 예상된다.

### 5) 단어의 사용 양상 제시 강화: 용례의 확장

뜻풀이만큼이나 국어사전에서 중요한 것은 용례라 할 것이다. 앞서 사용자들의 인식 조사에서도 용례의 보강 문제, 동시대적인, 실제 사례들에 대한 요구 사항을 읽을 수 있었다.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과정에서 어떤 맥락에서 어떤 단어들과 사용되는지를 확인하는 데에는 뜻풀이 그 자체보다 용례를 확인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사실 언어 자료가 대단위로 구축되어 검색이 가능한 데다 포털 등에서 원하는 단어를 치면 단어가 포함된 다양한 문장(텍스트)들을 쉽게 접하는 상황에서 사전에서 굳이 추가로 용례를 줄 필요가 있는가 하는 질문도 있을 수 있겠으나 앞서 ‘포털에서 검색되지 않는’, ‘빅데이터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국어 단어들에 대한 용례나 ‘정교하게 선택되어져서 참고하기 좋은’ 모델로서의 용례가 가지는 가치는 아무리 양적으로 많다고 해도 간과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수많은 문장들 사이에서 ‘어떤 문장이 가장 정확하고 정교하게 해당 어휘를 활용하고 있는 용례인가에 대한 판단은 개별 이용자가 아닌 언어 전문가가 해야 할 역할이기도 하다. 좋은 정보의 선별로서의 사전, 용례가 풍부하고 다양하게 적절하고 실질적인 정보의 선별이 이루어진 사전의 중요성은 오히려 정보가 넘쳐나는, 수많은 검색 결과 속에서 훨씬 더 그 빛을 발할 것이라 생각된다.

## V. 맺음말

이 연구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매체가 다양해지고 정보의 종류와 깊이가 정보화 시대에 국어사전의 역할과 나아갈 바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전 사용자의 사전에 대한 인식 및 사용 양상을 조사하는 한편, 언어 정보화 시대에 변모하는 사전의 특성을 정리하면서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어사전이 본질적으로 갖추어야 할 임무와 가치를 새롭게 해석하고 국어사전이 ‘국어’사전답게 보강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검토하였다.

다만 이 연구는 다소 선언적이고 개괄적인 방향 설정에 그치고 있어 세부적인 미시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보강되어야 하며, 국어 사용자가 계속해서 국어사전을 필요로 할 것인가, 그렇다면 어떤 내용으로 채워야 하는가와 같은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 역시 해결해야 할 주제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를 통해 계속 보강해 나가고자 한다.

\* 본 논문은 2020.4.30. 투고되었으며, 2020.5.14. 심사가 시작되어 2020.6.10.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 강현화(2000),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전자사전의 현황과 미래」, 『정보통신진흥연구원 학술기사』, 정보통신진흥연구원.
- 강현화(2009), 「새로운 사전의 필요성과 발전 방향」, 『새국어생활』 19(4), 21 - 28.
- 국립국어원(2019), 『국어사전 사용자 인식 조사(2019-01-45)』, 서울: 국립국어원.
- 김종환(2018), 「포털 이용자와의 사전 이용 현황」, 『한국사전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사전학회.
- 김진해(2008), 「관련어 정보와 어휘 의미 관계 기반 사전 기술」, 한정한·고석주·김진해·이동혁, 『한국어 어휘의미망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경기: 보고사.
- 도원영(2019 ㄱ), 「다양한 사전 콘텐츠의 수요와 사전의 미래」, 『국립국어원 원내토론회 자료집』, 서울: 국립국어원.
- 도원영(2019 ㄴ), 「새로운 사전의 필요성과 가능성」, 김선철·도원영·배연경·장경식·장선우·노석은·조지연, 『디지털 시대의 사전』, 서울: 한국문화사.
- 배연경(2013), 「사전 사용 연구의 현황과 의의」, 『한국사전학』 21, 108 - 134.
- 배연경(2016), 「사전의 진화와 미래」, 『새국어생활』 26(4), 43 - 64.
- 배연경(2019), 「해외 디지털 사전의 현재와 미래사전 편찬의 회고와 전망」, 김선철·도원영·배연경·장경식·장선우·노석은·조지연, 『디지털 시대의 사전』, 서울: 한국문화사.
- 엄태경(2013), 「국어사전의 미시구조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현경(2011), 「한국어사전편찬의 현황과 이론적 전개」, 『한국사전학』 17, 186 - 208.
- 이경우(2018), 「신문과 방송 사람들의 국어사전 이용 형태와 제언」, 『한국사전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사전학회.
- 이동혁(2010), 「사전과 어휘의미망에서의 의미 기술」, 『한국어의미학회 한국사전학회 공동학술 대회 발표논문집』, 한국어의미학회.
- 이상섭(2000), 「국어사전 사용자 설문에서 드러난 몇 가지 사실」, 『언어사실과 관점』 10, 59 - 79.
- 이홍식(2010), 「전자사전의 검색 방식 비교」, 『한국사전학』 15, 247 - 287.
- 장경식(2019), 「웹사전 서비스 현황과 과제」, 김선철·도원영·배연경·장경식·장선우·노석은·조지연, 『디지털 시대의 사전』, 서울: 한국문화사.
- 정영국(2003), 「영영 전자학습사전의 검색 방식 비교」, 『한국사전학회 제4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사전학회.
- 정철(2006), 「온라인 서비스를 위한 디지털 사전의 조건」, 『한국사전학』 8, 7 - 28.
- 정철(2008), 「온라인 백과사전 만들기 – 다음백과 2007 개편을 중심으로 한 필드 스터디」, 『한국사전학』 11, 65 - 110.
- 정철(2010), 「웹 사전과 맞춤법 자동교정기의 논리와 개선」, 『국어교육학연구』 39, 91 - 105.
- 정철(2016), 「한국어 웹 사전 사용자의 행동에 관한 생각」, 『새국어생활』 26(4), 27 - 42.

- 조남신(2007), 「언어사전, 백과사전, 그리고 보편사전」, 『슬라브어연구』 12, 189-201.
- 주세형(2000), 「사용자 중심의 국어사전」, 『한국어의미학』 7, 175-214.
- 홍재성(2009), 「기존 한국어사전 편찬의 성과와 한계: 또 하나의 한국어 대사전 개발을 위하여」, 『새국어생활』 19(4), 5-19.
- Hartmann, R.R.K. (2008), 『사전 편찬의 원리와 실제』, 서태길·김양진·도원영·이상혁·권오희(역), 서울: 제이앤씨(원서출판 1970).
- Whitcut, J. (1986), "The Training of Dictionary Users", In R. Ilson(Ed.), *Lexicography: An Emerging Profession*,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정보화 시대의 국어사전의 역할과 의의

이기연

이 연구는 정보화 시대에 국어사전의 역할과 나아갈 바를 사전 사용자 의 사전에 대한 인식 및 사용 양상을 조사하고 현재 사전들의 특징을 분석하여 국어사전이 본질적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를 확인하고 보강해야 할 사항 이 무엇인지 검토하였다.

먼저 사전 사용 양상 조사 결과 국어사전 사용자들이 사전을 통해 주로 확인하는 정보는 단어의 뜻풀이, 표기 및 규범(맞춤법, 띠어쓰기 정보), 원어 (한자), 용례 등으로 가장 ‘국어사전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의 국어사전은 주로 웹에서 서비스되면서 분량에 제한이 없고 시청각적 매체 활용이 용이해 사전에서 다루는 미시 정보가 매우 다양해지고 세분화 되었으며 무리한 언어 설명 대신 좀 더 효과적인 멀티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변모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들의 인식이나 사용 양상에 따른 요구 사항을 살펴보면 국어사전이 나아갈 방향은 기술적인 부분은 활용하되 가장 국어사전적인 성격이 강화되는 것이어야 하기에 국어사전의 본질을 회복하고 국어사전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며 사용상의 편의를 확 대하기 위해 뜻풀이의 강화, 용례의 확장, 표제어 검색 방식의 확대, 뜻풀이 정보의 수준별 제시 등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핵심어 국어사전, 웹사전, 표제어, 뜻풀이, 용례, 국어교육

## **ABSTRACT**

# The Role and Significance of the Korean Dictionary in the Information Age

Yi Kiyoun

This study examines the role of the Korean dictionary in the information age and the perceptions and usage patterns of dictionary users regarding its future. It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current dictionaries to identify and reinforce what essential values the Korean dictionary should pursue. The current Korean language dictionary is mainly accessed online, so there is no limit to the amount and convenience of available audiovisual media. Therefore, the micro information covered in the dictionary has become quite diverse and subdivided, and dictionaries are being transformed into a media for actively utilizing more effective multimedia rather than for accessing language explanations. In order to strengthen the nature of the Korean dictionary and expand its convenience, this study presents guidance on how to strengthen definitions, expand usage, expand search methods using headwords, and suggest the level of information for meaning.

**KEYWORDS** Korean Dictionary, Web Dictionary, Title Control, Definition, Examples, Korean Language Education